

발표 요약문

코로나19가 앞당긴 항만의 디지털화-함부르크항 사례 연구

엔스 마이어

함부르크 항만공사 사장

키워드: 디지털화, 청정 기술, 사이버 보안

코로나 19 글로벌 팬데믹으로 전세계 항만은 해운 활동 지속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유지해야 하는 초유의 도전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 항만이 이를 입증합니다.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이 순조로운 선원 교체와 항만 공사 전략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로나 19는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이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우선순위로 삼아 주지해야 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항만공사들은 청정 기술 도입과 적용을 규제할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현을 위해서는 혁신과 신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혁신과 신기술에 어마어마한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화 확대를 통해 사이버 위협과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문제들이 파생됩니다. 따라서 해운 산업은 사이버 보안에 역점을 뒤편어야 합니다. 보안은 전통적으로 수익원이 아닌 비용 센터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기업들은 우수한 보안이 곧 기업의 구현 동인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조직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